

# 중 신종 코로나 증가세 정체...“월말 확산 정점”

### 후베이성 이외 지역 확진자 첫 400명대...6일째 감소세 “날씨 따뜻해지면 극적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확진 환자의 증가세가 주춤해 이달 말 신종코로나 확산이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10일 0시 현재 전국 31개 성에서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4만 171명, 사망자는 90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는 하루 전보다 3062명, 사망자는 97명이 각각 늘었다.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주목할 부분은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정체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신규 확진자의 경우 처음으로 3000명을 돌파한 지난 3일 3235명을 기록한 뒤 지난 7일(3399명)까지 매일 3000명을 넘었으나, 지난 8일에는 2656명으로 감소했으며 9일에는 다시 3062명을 기록했다. 이는 신규 확진자 증가 폭이 하루 3000 명 안팎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마이클 라이언 긴급대응팀장은 “지난 4일간 후베이성의 신규 확진자 수는 안정세를 나타냈다”며 “이는 좋은 소식이며, 신종코로나 통제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확진자 수가 아직 감소한 건 아니며, 증가세 정체가 일시

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며 “아직 검사해야 할 의심 환자가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종코로나 진원지인 우한(武漢)이 있는 후베이(湖北)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후베이를 제외한 중국 전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9일 444명이었었다. 후베이를 제외한 중국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일 890명을 기록한 이래 4일 731명, 5일 707명, 6일 696명, 7일 558명, 8일 509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런 수치를 보면 후베

이를 뺀 나머지 중국 지역의 신규 확진자가 몇십명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9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까지 처음으로 감소해 신종 코로나 사태 진정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중국 전체의 신규 중증 환자의 경우 지난 7일에는 1280명이었는데 8일 87명, 9일 296명으로 비교적 많이 줄어든 것도 좋은 신호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종코로나 확산세가 이달 말 정점을 찍은 뒤 진정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인 이안 립킨 컬럼비아대

교수는 “봄이 오면 신종코로나 감염률이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온이 상승하는 2월 말이면 확산세가 한풀 꺾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주에 중국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가 끝나고 사람들이 직장으로 복귀하면서 감염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전염병 전문가인 애덤 쿠차스키는 블룸버그통신에 “신종코로나 확산의 정점은 이달 중순이나 말에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며 “정점기에 우한 1100만 명 인구의 5%는 신종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철조망 처진 베이징 아파트 8일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가 철조망이 쳐진 채 봉쇄돼 있다. 이 아파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4개 문 가운데 3개 문을 폐쇄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아파트를 봉쇄식으로 관리하는 도시들이 대거 늘었다. /연합뉴스

## 뉴햄프셔 샌더스·부티지지 박빙 승부?

### 여론조사 오차범위내 접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2번째 경선인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피트 부티지지 전 사우스벤드 시장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첫 경선인 3일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도 초박빙 승부를 펼치며 1, 2위를 기록했다. 경선 투표 전까지는 다크호스 정도로 여겨졌던 부티지지의 놀라운 상승세 속에 치열한 선두 경쟁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9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WBZ-TV와 보스턴글로브, 서팩대학이 공동으로 조사해 전날 저녁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 샌더스는 24%의 지지율로 1위에 올랐다.

부티지지는 지지율 22%로 뒤를 바짝 쫓았다. 다만 샌더스가 2%포인트 앞서기는 했지만, 이는 오차범위(±4.4%포인트) 안에 있어 두 사람이 통계적으로 동률을 이루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민주당 프라이머리 투표인단 500명을 대상으로 8일 이뤄졌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13%의 지지로 3위를 기록했으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0% 지지율로 4위였다. 또 에이미 클로버사 상원의원의 경우 9%의 지지율로 5위에 올랐다.

한편 NBC방송과 여론조사기관 마리스 트가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샌더스는 25%로 1위를, 부티지지는 21%로 2위를 각각 기록했다. 조사는 뉴햄프셔 투표인단 709명을 대상으로 4~6일 이뤄졌다. /연합뉴스

## “미국, 한국 등에 미사일 배치하면 대응”

###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사일을 손쉽게 배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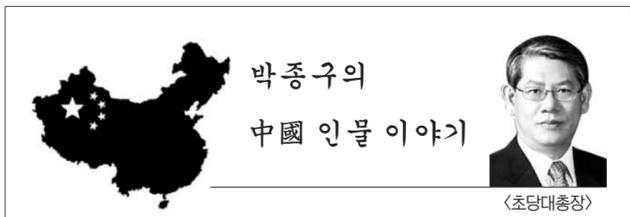
타스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현지 매체 라스키카가 가제타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거리와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이 계획에 언급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두 나라(한국과 일본)는 그러한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미국이 정말로 자신들의 미사일을 그곳에 배치하고 싶어한다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면서 해당 미사일들

이 태평양 한가운데 섬들에 배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타스는 “라브로프에 따르면 이 같은 계획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미사일이 해당 지역에 배치되면 지리적으로 러시아 영토의 상당 부분이 사정거리 안에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사일이 일본과 한국에 배치된다면 우랄산맥(러시아 중부,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산맥) 전 지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 경우) 당연히 우리는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 이러한 게임(미사일 배치)의 위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 〈219〉 사마광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의 자는 군실이고 산시성 섬주 하현 출신이다.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저술한 역사가이며 북송 신종, 철종 때의 정치인이다.

어릴때부터 신동으로 소아격응도(小兒驚風聖藥) 일화의 주인공이다. 어릴 때 한 친구가 물독에 빠졌는데 다른 아이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 하였다. 그는 침착하게 돌을 던져 물독에 구멍을 내어 물을 빼 친구를 구출했다. 이 이야기는 그림으로 그려져 교과서에 실렸다.

1038년 진사에 급제했다. 용도각직 학사, 한림학사, 어사중승을 거쳐 상서 좌복야 겸 문하시랑으로 승진했다. 한림학사로 있을 때 왕안석이 신종의 신

술되어 내용이 여기저기 중복되고 번잡스러웠다. 사마광은 이를 편년체로 서술해 쉽게 과거의 역사와 흥망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치통감을 저술하게 된 이유로 “늘 역대의 역사책이 번잡하여 읽기가 힘들고 두루 읽을 수가 없음을 걱정하였다”고 밝혔다. 수많은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점도 이 책의 장점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소설처럼 생동감 있게 서술한 것이 오랜 기간 최고의 사서로 자리매김한 이유를 볼 수 있다.

자치통감은 ‘제왕학의 교과서’, 영원한 ‘정치 교과서’로 높이 평가된다. 청나라 말의 양계초는 대표적 정치 교과서로 불렀다. 명나라 말의 왕부지도 “힘써 잘 다스려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이라고 책의 의미를 밝혔다.

## 북송 신종때 정치인... ‘자치통감’ 저술

임하에 신법 개혁에 착수했다. 보수적 성향의 사마광은 “조종(祖宗)의 법을 바꿀 수 없다”며 신법 시행에 반대했다. 한기, 문언박, 소식 등과 함께 신법에 반대하는 구법당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기존 관료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느껴 농민과 상인을 구제하는데 목적을 둔 신법을 수용할 수 없었다. 청묘법, 시역법 등에 반대입장을 피력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중앙에서 퇴출되었다. 부도인 낙양에서 사실상의 은거 생활에 들어갔다. 그는 토지겸병을 막고 농민과 빈민을 구제하려는 신법의 취지에 공감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구질서와 구체제의 옹호자라 할 수 있다.

낙양에 은거해 필생의 역사서인 자치통감의 집필에 전념했다. 유서, 유방, 범주 등의 도움을 받아 1084년 전국시대에서 오대까지의 방대한 편년사를 완성했다. 주 위열왕 때부터 오대 세종 때까지 1362년의 역사를 기록했다. 전체 294권에 이르는 역사서다. 신종은 “지난 일을 거울 삼아 치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자치통감이라는 책명을 하사했다. 공자가 지은 춘추의 체제를 본받아 명분을 바르게 하고 군신간의 대의를 분명히 해 정치의 나아가는 바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보수파의 거두답게 급진적 개혁의 위험성을 경고하려 하였다. 사마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서는 기전체로 서

술된 세상은 자치통감을 알기 쉽게 주석을 달도록 해 사대부들이 널리 읽도록 했다. 과거시험의 필수 과목이 되었다. 한기, 문언박, 소식 등과 함께 신법에 반대하는 구법당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기존 관료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느껴 농민과 상인을 구제하는데 목적을 둔 신법을 수용할 수 없었다. 청묘법, 시역법 등에 반대입장을 피력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중앙에서 퇴출되었다. 부도인 낙양에서 사실상의 은거 생활에 들어갔다. 그는 토지겸병을 막고 농민과 빈민을 구제하려는 신법의 취지에 공감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구질서와 구체제의 옹호자라 할 수 있다.

낙양에 은거해 필생의 역사서인 자치통감의 집필에 전념했다. 유서, 유방, 범주 등의 도움을 받아 1084년 전국시대에서 오대까지의 방대한 편년사를 완성했다. 주 위열왕 때부터 오대 세종 때까지 1362년의 역사를 기록했다. 전체 294권에 이르는 역사서다. 신종은 “지난 일을 거울 삼아 치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자치통감이라는 책명을 하사했다. 공자가 지은 춘추의 체제를 본받아 명분을 바르게 하고 군신간의 대의를 분명히 해 정치의 나아가는 바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보수파의 거두답게 급진적 개혁의 위험성을 경고하려 하였다. 사마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서는 기전체로 서

술되어 내용이 여기저기 중복되고 번잡스러웠다. 사마광은 이를 편년체로 서술해 쉽게 과거의 역사와 흥망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치통감을 저술하게 된 이유로 “늘 역대의 역사책이 번잡하여 읽기가 힘들고 두루 읽을 수가 없음을 걱정하였다”고 밝혔다. 수많은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점도 이 책의 장점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소설처럼 생동감 있게 서술한 것이 오랜 기간 최고의 사서로 자리매김한 이유를 볼 수 있다. 자치통감은 ‘제왕학의 교과서’, 영원한 ‘정치 교과서’로 높이 평가된다. 청나라 말의 양계초는 대표적 정치 교과서로 불렀다. 명나라 말의 왕부지도 “힘써 잘 다스려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이라고 책의 의미를 밝혔다.

# 815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원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청단지점 576-4150